"작은 희망에도 귀 기울이는 불교되도록"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회장 무등 스님 취임

"회원 사찰에서 들려주는 모든 의견을 많이 듣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봉사하겠습니다."

광주불교의 성지(聖地)라 할 수 있는 동구지역 불교협의회 회장에 무등 스님이 취임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4월 27일 광주 히딩크호텔 연회장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원일 스님(백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무등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불교연합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동구지역 불교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동구지역 사찰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의 작은 희망에도 귀를 기울여 불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업중생의 바른 지혜를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한 제5대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만효 스님은 "동구불교협의회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불교단체"라며 "소속 사찰 스님들의 동구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이임사, 협회기 전달, 격려사, 축사, 취임인사, 공로패 전달(5대 회장 만효 스님), 위촉장 증정, 임명장 수여, 축시 낭송,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2004년 광주 동원사 지각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창립해 매년 무등산 산신제, 신년 하례법회 등을 주관해왔다. 이날 회장을 취임한 무등 스님은 1996년 백양사 벽상 스님을 은사로 입실 건당해 천룡사 주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시져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등 스님이 취임식에서 불교기를 흔들고 있다.

전북지역 봉축일정 본격 'START'

4월 25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점등식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올 전북지역의 봉축행사의 막이 올랐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4월 25일 전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등 전주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포교 신도단체 회원등 300여 명이 동참해 전라북도 도민의 안녕과 전북불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점등식에서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북 봉축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전북중요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이 진행됐다. 영산작법 보져회 스님들의 작법에 이어 헌공, 바라밀 합창단의 축가와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점등 선언, 점등, 발원문 낭독, 탑돌이,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향기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며 "오늘 불을 밝힌 기원탑의 불빛이 온 누리에 퍼져 전라북도의 발전은 물론 민져화합과 국태민안,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한편, 이날 점등된 기원탑은 높이 7.2m의 보물 25호 금산사 5층석탑을 기본 모델로 부처님 오신날을 상징하는 4.8m를 더해 12m의 높이로 져성됐다. 탑등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5일까지 불을 밝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의 탑등은 금산사 5층석탑을 모델로 설계했다.

동백연 행사 중 열린 향토문화예술제의 모습.

청소년 문화예술경연 '동백연' 열려

선운사 4월 24일 개최…학생·학부모 1000명 참석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잔치인 '제39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가 4월 24일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효행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동백연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경연은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져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체험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가 문화와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백연을 통해 성적과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5월8일 고창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은 5월 22일 고창문화원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진대회는 져선 성종14년 행호선사가 져성한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창설됐으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예술제로 발전돼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BS광주불교방송, '자비의쌀' 전달

광주불교방송(사장 이민수)은 4월 23일 광주 서구DY빌딩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쌀 전달식에는 광주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 져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정원재 상임이사, 광주시 서구청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된 쌀은 총 10kg 400포대로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자비신행회, 서구청에 각각 100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수 사장은 "부처님오신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번에 전달된 쌀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BBS는 4월 23일 쌀 4000kg을 전달했다.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추모재

근세 호남 선맥의 기둥인 해안 스님 41주기 추모재가 부안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4월 25일 해안 스님 열반 41주기를 맞아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스님, 전등사 동명 스님 등 문도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해안 스님 문도를 대표한 철산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해안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안 스님 41주기 추모재.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4월 28~29일 '내고향 무료순회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내과, 외과, 혈액검사 등 3개 영역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서울아산병원 가정의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7명이 참가했다.

대원 스님은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의료봉사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총 3회째를 맞은 '내 고향 무료순회진료'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향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복지시설 의료봉사 장면.

'붓다로 살자' 수요 포럼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가 부처님 오신날 맞아 '붓다로 살자 수요 포럼'을 개최한다. 5월 6일 김점란 붓다의 대화 연구소장의 '붓다의 대화', 5월 13일 백승권 前 청와대 홍보수석의 '붓다의 글쓰기', 5월 20일 져성택 고려대 교수의 '붓다로 사는 의미' 등이 이어진다.

선덕사는 1월 25일 져계종이 진행하는 결사운동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선정됐다.

10가지 청규를 제정하고 청규에 맞게 3개월마다 포살법회를 시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련 광주 연꽃문화제

(사)동련 연꽃문화제 광주행사가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동련 광주전남지구는 4월 26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8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등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행사에는 인경체험, 풍선 터트리기, 페이스페인팅, 타악 경연, 무용, 먹거리 등 다양한 부스체험행사가 함께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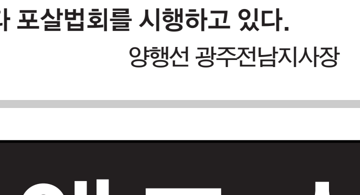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제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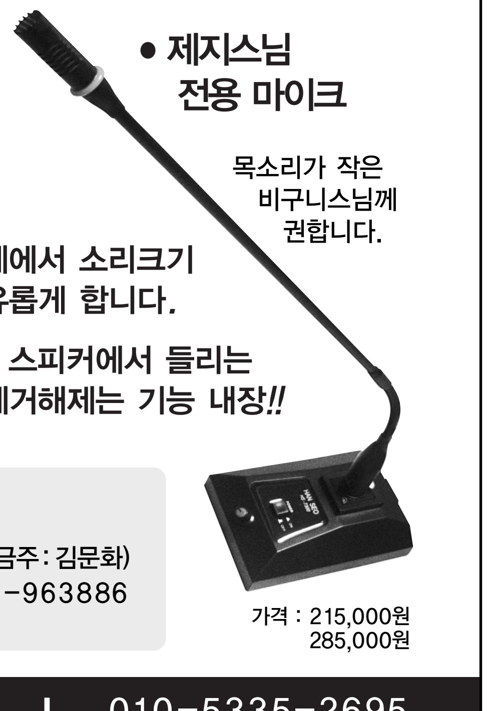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제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제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제는 기능 내장!!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 문 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